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박은우, 편집인: 임정빈
편집: 농생대 홍보·편집위원회
(김진모·배정환·양태진·이종용·임상준)

2010년 신년사

농생대의 역량을 집결하여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



학장 박은우

庚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농생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교수님과 직원 선생님들께서 추진하셨던 많은 일들에 큰 성과가 있었으리라 믿으며, 우리 농생대 발전을 위하여 모든 분들이 베풀어 주신 이해와 도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가 농생대 학장을 연임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런 일이었으며, 이를 허락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우리 농생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과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나열한다면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공사 착공, WCU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설치, SPC 농생명과학연구동 개관, CALS Vision 2015 선포,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최우수 통합연구원 선정, 나이셈 최우수 부속서비스 기관 선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평가이지만 수원캠퍼스에 있는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의 우수한 활동과 농생대의 깨끗한 건물 관리에 대한 칭찬은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반기에 남부학술림 대부분의 토지를 유류재산으로 판정하여 정부가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학술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단 한 뼘의 토지도 빼앗기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교수님들과 직원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과들은 앞으로 농생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면에 계속)

최우수 기관 선정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농업생명과학연구원과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서울대학교 연구원/부속기관 평가에서 '최우수'의 평가를 받았다. 농업생명과학연구원(원장 농생대 박은우 학장)은 조직 및 운영, 연구여건, 연구소 활동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공계열 4개 통합연구원 중 최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되었다.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은 2001년 기존의 농업개발연구소를 모체로 기존 연구소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연구지원 관리체계를 갖춘 종합 연구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7개 연구소와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산림과학부 최인규 교수)은 기관 기능의 특성화, 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인 고수익 사업 개발, 지속적인 예산 및 우수한 전임인력 확보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 서비스 부속시설로 선정되었다.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은 농업·환경·생명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2년 설립된 기관으로, 첨단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이용자가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분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3면 CALS VISION 2015 기부 스토리

- 1면 _ 신년사
- 2면 _ 외국인 학생, 교수 초청 행사
- 3면 _ BK21 우수사업단 선정
- 4면 _ 화제의 농생대사
- 5면 _ CALS VISION 2015
- 6면 _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 7면 _ 국가농림기상센터
- 8-9면 _ 농생대 인사이드
- 10면 _ 동문탐방
- 11면 _ 언론에 비친 농생대
- 12면 _ 농생대 사람들

한편으로 2009학번의 나형주 학생이 교외실습을 나갔다가 불의의 교통 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건은 너무도 애통한 일이었습니다. 선생이 훌륭한 제자를 잃은 아픔도 크지만,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께는 어떠한 말과 보상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 나형주 학생의 명복을 다시금 빌며, 이 기회에 학내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농생대 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CALS Vision 2015 선포식에서 제시한 농생대 발전 목표를 향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단숨에 세계 10위 수준의 초일류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역량으로 보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행정지원 직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체성과 경쟁력 있는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과 재정적 뒷받침이 혁신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생대의 학문적 수월성과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학부장과 전공주임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강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태부족한 재정을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대 법인화는 농생대 차원의 재정 확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발전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발전기금에 농생대로 지정된 기금의 출연동향을 보면 2004년-2007년 동안 매년 20-30여건의 출연으로 5천만원 안팎의 기금을 모았으나, 2008년에는 134건에 8억 5천만원, 2009년에는 308건에 6억6천만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출연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농생대 가족 전체가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저는 CALS Vision 2015가 지극히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확보와 기후변화가 핵심 이슈화되면서 농업과 생명과학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농생대 집행부는 2010년에도 학내외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봉사'와 '지원'의 자세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연구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농생대 가족 여러분들이 건승하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초청행사



■ 농생대에는 외국인 교수 4명과 외국인 재학생 및 연구원 11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차 각국에서 활약하며 농생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이들에게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환영 행사가 2009년 11월 19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생대 소개, 각국 홍보 영상 상영, 외국인 학생 공연, 대금 공연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다.

CALSP 송년모임



■ 2009년도 신입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2009 CALSP의 한해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2010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송년모임이 2009년 12월 18일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CALSP 멤버 30명과 함께 박은우 학장을 비롯한 농생대 교수진 등 모두 40여 명이 참석했다. CALSP 1년 동안의 활동 동영상과 학생 영상편지 상영과 함께 임원진 감사패 수여와 산림과학부 이우신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CALS VISION 2015_기부 스토리

현정오 교수, 신익현 동문 장학 기금 출연



현정오 교수(오른쪽)과 서울대 이장무 총장

■ 산림과학부 현정오 교수가 산림과학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1억1천5백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 전액은 현정오 교수의 부친인 故 현신규 박사가 조성한 '향산 장학금'을 확충하는 동시에 향후 산림과학부 장학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익현 동문(오른쪽 두 번째)과 박은우 학장(오른쪽 끝)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故 현신규 박사는 모교 농과대학 교수, 농촌진흥청장 등을 지내고 한국 육종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현정오 교수 역시 부친을 이어 모교에서 임목육종학을 강의하고 있다.

■ 신익현 동문(임학 79)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원목수출회사인 Pacific Forest Products를 운영하고 있는 신 동문은 농생대 재학 중 은혜를 베풀어준 은사님들과 대여자장학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금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또한 1938년 수원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한 김영준 동문 유족들도 정성을 모아 3천만 원을 기부했다. 계속 이어지는 농생대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세계 초일류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도약한다는 'CALS VISION 2015'의 달성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BK21 우수사업팀 선정 범국가 및 지역분석전문가 인력양성팀, 산업인력개발전문가 양성 사업팀

■ 지난 2009년 12월 14일 발표된 2단계 BK21사업의 3차년도 연차평가결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범국가 및 지역분석전문가 인력양성팀' (사업팀장 농경제사회학부 김의준 교수)과 '산업인력개발전문가 양성 사업팀' (사업팀장 농산업교육과 김진모 교수) 등 2개 사업팀이 우수사업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연차평가는 해당분야별로 지난 1년(2008.3.1.~2009.2.28.)동안 달성한 실적에 대해 총점과 순위를 정하는 평가방식으로 전국 70개 대학, 495개 사업단을 평가하였다. 이 결과 농생대에서는 2개 사업단이 해당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면서 우수사업팀으로 평가되어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범국가 및 지역분석전문가 인력양성팀'은 세계적 수준의 공간 및 지역분석 수행 능력의 육성과 지역경제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산업인력개발전문가 양성 사업팀'은 세계 수준의 산업인력개발(학교부문, 공공부문, 기업부문)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인적자원 경쟁력 확보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인력개발 전문가 양성 허브'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BK21(Brain Korea 21)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 인력양성 사업으로 2006년부터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승일 교수, 노동부장관 표창



나승일 교수(농산업교육과)가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중소기업청의 공동 주최로 2009년 11월 18일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소기업기술인재대전'에서 '핵심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중소기업기술인재대전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중소기업들의 결의를 다지고자 개최된 행사로, 표창은 전문계고, 대학,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학교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생대는 지난 겨울 애통한 이별을 했다. 2009년 11월 21일, 2009학번 나형주 군이 교외학습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故 나형주 군은 평소 학업과 함께 동아리 활동 등 교외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활발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농생대에서는 故 나형주 군의 명복을 빌며 교육연구재단에 조성된 기금 1억 원과 농생대 교직원들이 출연한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나형주 장학기금'으로 명명하고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故 나형주 군의 명복을 빈다.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농협중앙회, 산학협력 조인식

■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은 농협중앙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산·학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이룩하도록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1월 21일 농생대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조인식이 개최되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왼쪽), 서울대 산학협력단 서진호 단장

앞으로 두 기관은 직원교육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고, 공동연구과제를 선정,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증진, 기타 축산업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CALS Global Challenger

■ 농생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방학마다 CALS Global Challenger를 선발하여 해외 선진 농산업시설 탐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3개팀 총 9명의 학생이 제4기 CALS Global Challenger로 선발되어, 스스로 결정한 탐방 주제와 일정에 따



CALS Global Challenger와 박은우 학장(오른쪽), 김정환 학생부학장(왼쪽)

라 각 팀별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우수한 농산업 기관과 시설을 방문했다. 이들은 탐방에 앞서, 1월 19일 박은우 학장에게 임명장을 수여받고, 무사히 탐방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

화제의 농생대인



아프리카에 최초로 대학을 세운 한국인

아프리카 우간다 쿠미(Kumi)지역에 위치한 쿠미대학은 한국인이 아프리카에 최초로 세운 대학이다. 1996년 이 쿠미대학의 전신인 '아프리카 지도자 훈련원'을 세운 이가 바로 유형렬 동문(농업교육 78, 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다. 유형렬 동문은 농대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해외봉사단원이 되어 우간다 쿠미에 정착했다. 그곳에 아프리카 지도자 훈련원을 세우고 망고나무 그늘을 교실 삼아 청년 38명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쳤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쿠미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어 정식 개교했고, 현재는 재학생 940여명, 교수 78명, 교직원 28명으로 성장했다. <조선일보 2009년 11월 7일자 발췌>



서울대 신입생이 된 잠비아 유학생

서울대 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해 농경제사회학부에 합격한 켄트 카마숨바 군. 2009년 2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카마숨바 군은 같은 해 3월 한국인 선교사들과 경남 지리산 고등학교(교장 박해성)의 지원으로 한국으로 건너와 7개월여의 노력 끝에 서울대에 합격했다. 대학을 마치면 잠비아로 돌아가서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카마숨바 군은 나중에는 잠비아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서울대 동시 입학한 남매

농경제사회학부에 한 살 터울 남매가 함께 입학하게 됐다. 누나인 김하나 학생이 지난 수능에서 고배를 마시고 남동생인 김종대 학생과 올해 함께 입학하게 된 것. 충남 당진에서 농촌 생활을 하며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들 남매는 대학 재학 중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과 함께, 졸업 후에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 농촌의 실상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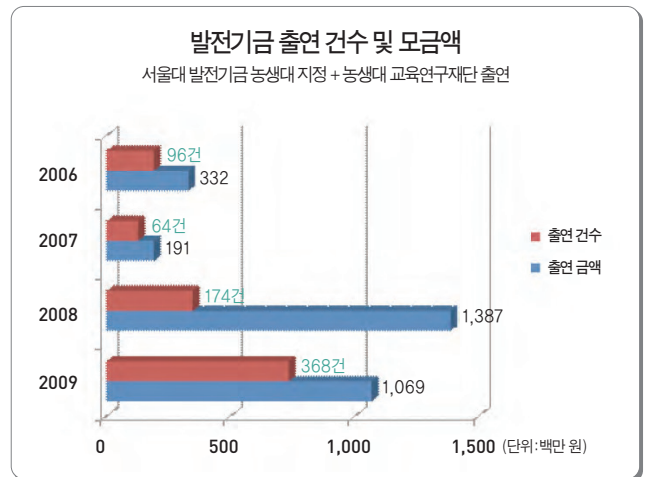
세계 초일류 대학을 향한 힘찬 발걸음

■ 농생대는 2009년 10월 27일 열린 ‘CALS VISION 2015 선포식 및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에서 국제적 인재 양성, 학문적 수월성 제고, 농산업 현장성 제고,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10위권 농업생명과학대학으로 발전한다는 ‘CALS VISION 2015’를 야심차게 선포했다.

농업생명과학은 자연, 환경과 생명을 통합하는 학문으로 확대, 변화하고 있고, 농산업의 영역 역시 신지식의 융합과 함께 녹색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농생대는 세계 초일류 수준의 농생명 교육, 연구, 봉사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농생대는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CALS VISION 2015’의 달성을 위해 달리고 있다.

충분한 재정 확보는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농생대와 우리나라 농업생명과학의 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CALS VISION 2015’ 달성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최근 농생대에 대한 후원이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다. (그래프 참조) 특히 출연 건수의 증가는 기업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컸던 기존 모금 방식에서 탈피하여 동문, 교직원, 학부모, 일반 후원자 등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

되었음을 보여준다. 농생대의 미래와 발전을 염원하는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이 ‘CALS VISION 2015’의 실현으로 열매 맺기를 기원한다.



농생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기금출연 약정자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기금출연 약정자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지정 약정자
- 기간: 2009년 12월 1일 ~ 2010년 2월 7일

* 1억원 이상

- 한국전파기지국㈜(대표이사 장병권, 김일중) 150,000,000

* 5천만원 이상

- 신익현(임학79) 50,000,000

* 1천만원 이상

- 테크피아(대표이사 정명재) 35,000,000
- 농협중앙회 서울대지점 10,000,000
- 윤여창(산림과학부 교수) 10,000,000

* 5백만원 이상

- (유)PPG코리아(대표이사 권지용) 9,000,000
- 정종홍(농공89) 5,500,000
- 김문숙(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딸) 5,000,000
- 김영숙(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딸) 5,000,000
- 김유겸(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아들) 5,000,000
- 김지숙(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딸) 5,000,000
- 김화겸(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아들) 5,000,000
- 고려pro시스템(대표이사 이정길) 5,000,000

* 1백만원 이상

- 김형석(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000,000
- 투플러스코스팜㈜(대표이사 안홍엽) 3,000,000
- 피타코이드㈜(대표이사 박영세) 3,000,000
- 정경란(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자부) 2,142,860
- 김국형(농생명공학부 교수) 2,000,000
- 유원예코사이언스㈜(대표이사 주원준) 2,000,000
- 윤관희(셀테크 대표) 2,000,000
- 김성희(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손녀) 1,428,570
- 김재학(1938년 수원농과대학 입학과졸업 김영준의 손자) 1,428,570
- 김경욱(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교수) 1,000,000
- 김완배(농경제사회학부 교수) 1,000,000
- 박종국(농화학57) 1,000,000
- 한두봉(고려대 교수) 1,000,000

* 1백만원 미만

- 주봉규(농경제사회학부 명예교수) 500,000
- 익명 후원자 500,000
- 문제풍(농업교육74) 300,000
- 박마리아 100,000

※ ‘CALS VISION 2015 선포식’ (2009년 10월 27일)에서 약정하신 분들의 명단은 지난호에 모두 기재했으므로, 참여신청서를 12월 이후에 접수했다더라도 선포식 행사장에서 약정하신 분들은 위의 명단에 실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순조롭게 진행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세계 일류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목표로 강원도 평창군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기존 수원에 있던 목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산·학·연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우수인력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단지는 연구 개발, 교육 및 서비스, 산학협력 및 수익사업 기능을 수행하며, 첨단 기초 연구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산학협력 및 수익사업을 추진, 대학·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그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2009년 7월 착공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약 2천 7백억 원, 대지규모 약 28만 ㎡, 연면적 약 8천 6백 ㎡의 단일사업으로는 서울대 개교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교육행정시설, 연구시설, 농목장시설, 주거근린시설, 산학협력단지로 구성된다. 2011년 준공을 목표로 2004년부터 사업 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조사, 조사용역, 인허가 행정처리 등의 순차적인 단계를 밟아 추진되었으며, 2009년 7월 기공식을 성황리 개최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조성 공사의 공정률은 약 9% 정도이다.

농생대, 사업화추진단 가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2011년 준공 이후 효율적인 연구단지 운영을 위해 사업화추진단(단장 농생명공학부 최윤재 교수)을 구성하여 연구분야 설정뿐만 아니라 지역 및 산업체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모색 중에 있다. 먼저, 연구분야 설정의 기본원칙을 ①실용·현장성·지역성·원천기술 개발의 조화 ②관악캠퍼스 등과의 차별화 ③정부 R&D정책방향 부합 및 연구사업단 유치 가능성 ④관련 대학의 참여 및 협력으로 정하고, 사업화 가능성 및 현장성이 높은 연구분야와 원천기술에 관한 연구분야를 구체화하고 있다.

산학협력 추진

한편, 연구단지의 자립 및 산학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위해 연구단지에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학협력기업에게 “서울대학교” 브랜드 사용, 산학협력단지

부지 임대 제공, 연구개발 공동 수행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산학협력 분야로는 농산업 관련 전 분야 및 생명공학·환경과학·의학·제약과 관련된 분야 등이 있으며, 산학협력 유형으로는 공동투자, 단독투자, 소규모 산학협력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평창의 농축산물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강원도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구 교육에 협력할 예정이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단순한 연구만을 위한 단지가 아닌 연구개발, 현장·실용화, 산학협력, 지역 연계를 통해 첨단연구단지로서의 자생력을 갖추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와 교육으로 국가 바이오 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 추진 경과

2004년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계획 수립	2008년 2월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로 결정 공고
2004년 12월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양해각서 체결	2008년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 보상공고, 감정 평가 및 협의 매수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2008년 7월	강원도, 평창군, 서울대 산학협력계약 체결
2006년 5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서 제출	2009년 3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07년	조사사업 용역 진행	2009년 7월	기공식 개최 및 착공
2007년 12월	조달청 턴키 입찰 및 계약 (대림산업 컨소시엄)	현재	공사 공정률 9%

국가농림기상센터 출범

(National Center for Agro-Meteorology)

농림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자연재해의 경감, 자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녹색성장의 모태인 농림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에 국가농림기상센터(이사장 농생대 박은우 학장)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농림기상센터는 현행 개별 기관에서 각각 수행했던 농림기상서비스 요소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시너지효과를 통해 농림생산성 증대, 국토 자연경관유지, 기후변화대응 등 국가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설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림업의 주기 능인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협하는 장애요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림기상업무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조직의 분산, 전문인력 미흡 등으로 변화의 바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2009년 7월 10일 국가농림기상 공동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을 공동 추진하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25일 창립총회, 11월 3일 법인등록을 거쳐, 11월 12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개소 및 현판식을 갖고 국가농림기상센터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농생대, 농림기상 R&D 전문인력 육성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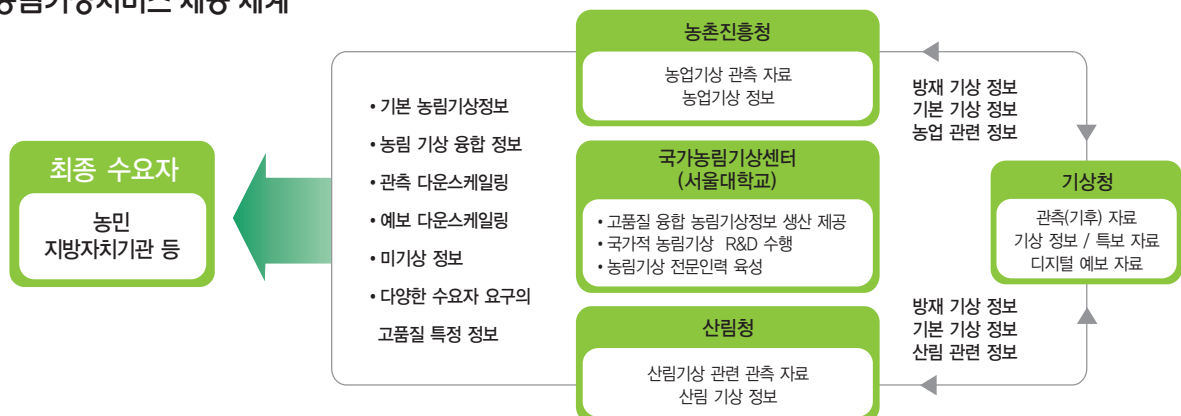
농림기상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될 국가농림기상센터는 농림 기상지원을 위한 범부처 기상 및 농림 정보를 총괄 관리하고, 농림기상정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며 농림기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훈련·교육센터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현장 활용기술을 연구하고 첨단 IT기반 선진형 농림기상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고품질의 융합 농림기상정보를 생산, 제공하고 국가적 농림기상 R&D를 수행하며 농림기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힘쓰게 된다.

농림기상 선진화, 녹색성장의 밑거름

향후 국가농림기상센터는 기후변화 예측을 통한 자연재해경감, 작물생육예측, 병충해 예찰 등 현장에 맞는 상세 맞춤형 농림기상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것이다. 또한 수치예보 기반의 선진 농림기상예보서비스 제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성 증대 등 국가 지속발전과 국제적 식량안보 전략수립에 기여하고 국가 농림기상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 위상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림기상서비스 제공 체계





쌀 사랑 심포지엄



최양부 회장(농식품생명과학 세미나)



통계세미나(이순묵 교수)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심포지엄

‘쌀이 보배! 쌀사랑’ 산학연관 심포지엄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소장 농생명공학부 문태화 교수)는 2009년 11월 25일 SPC농생명과학연구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인 쌀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산학연관의 실질적인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열린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SPC그룹, CJ제일제당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영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과 정승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용도 개발 전략과 쌀을 이용한 실제 제품의 개발 현황 및 애로 사항, 쌀 제품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어 쌀 소비 현황과 문제점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도 열렸다.

제7회 농식품생명과학 정기세미나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및 (사)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회장 박은우 학장)는 2009년 12월 3일 서울웨스턴조선호텔에서 제7회 농식품생명과학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최양부 아시아농업경제학회 회장이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주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을 넘어 생태유기농업으로」를 주제로 특별강연했다.

BK21 산업인력개발전문가양성사업팀 / 산업핵심역량개발연구팀 세미나

BK21 산업인력개발전문가양성사업팀(팀장 농산업교육과 김진모 교수)과 산업핵심역량개발연구팀(팀장 농산업교육과 나승일 교수)은 연속하여 국내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 12월 3일에 한국도로공사 인력개발원 박노길 원장이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12월15일에는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김찬호 교수가 ‘창의성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어 1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이순묵 교수를 초청하여 통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농생명공학부 국제심포지엄

농생명공학부는 2009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영양과 운동이 노화, 비만 및 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Strategies on nutritional supplementation and exercis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와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modulation of ageing, cancer and metabolic disorders by diets and physical’을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심포지엄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소장 식물생산과학부 고희중 교수)는 2009년 12월 18일 SPC농생명과학연구원에서 제2회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제5회 한국식물분자표지연구회 학술행사와 한국육종학회 젊은육종가협의회 학술행사가 함께 열렸다. ‘분자표지를 이용한 유전자원 활용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관련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청소년을 위한 생명 · 환경과학 체험학습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산림과학부 최인규 교수)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2월 26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생명 · 환경과학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의 후원으로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방학프로그램에는 800여 명의 중 · 고등학생이 참가했다.

생명과학 및 환경과학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미래 지구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실험을 비롯한 생명 및 환경과학 관련 실험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생명 · 환경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DNA와 미생물, 단백질 관련 생명공학프로그램 등이 개설되었다.

2009학년도 바이오에너지 포럼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에너지연구팀(팀장 농생명공학부 서진호 교수)은 4회에 걸쳐 2009학년도 바이오에너지 포럼을 개최했다. 2009년 9월 30일 개최된 제1차 포럼에서는 광운대 화학공학과 김용환 교수가 '효소이용 바이오플라스틱 중합'을 주제로 발표했고, 10월 27일 열린 제2차 포럼에서는 동국대 환경생태공학과 강규영 교수가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11월 19일 열린 제3차 포럼에서는 국민대 발효융합전공 박용철 교수가 'Biosynthesis of fine chemicals from renewable resources'를 주제로 발표했고, 12월 23일에 개최된 제4차 포럼에서는 전남대 임산공학과 이재원 교수가 'Oxalic acid 전처리에 의한 목질바이오매스의 에탄올 생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농업생명과학정보원 홈페이지(icals.snu.ac.kr)에서 제공되고 있는 VOD 서비스를 통해 각 포럼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재원 교수(4차 바이오에너지 포럼)

NICEM, 기기 사용자 교육프로그램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 원장 산림과학부 최인규 교수)은 기기 사용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 이용자와 생명공학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원 및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월 4일부터 400MHz NMR(액체용-핵자기공명분광기, JEOL) 기기의 직접사용자를 위한 실습 교육을 시작하여 사용자가 숙련될 때까지 원하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월 26일부터 27일에는 '투과전자현미경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료를 고배율에서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투과전자현미경(TEM)에 대한 강의와 함께 생물 시료의 전처리 및 관찰을 중심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NICEM 홈페이지(nicem.snu.ac.kr)를 통하여 교육 및 워크숍 일정을 확인하고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NICEM, 투과전자현미경

교육연수원, 전문계고 창의적 혁신리더 과정

교육연수원(원장 농산교육과 김진모 교수)은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교육연수원 주관으로 '제15기, 16기 전문계고 창의적 혁신리더 과정'을 1월과 2월에 걸쳐 운영하였다. 전국 전문계고 부장급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 과정은 제15기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16기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호암교수회관 및 일본 후쿠오카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연수원은 전국 전문계고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스터고교 직업 기초능력 인증제 운영과정'을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개설, 운영하였다.



전문계고 창의적 혁신리더 과정

한·아세안환경협력사업단 단기연수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 한·아세안환경협력사업단(단장 산림과학부 이돈구 교수)은 필리핀 국립대학교에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Community Forestry for Middle Management Staff"라는 주제로 ASEAN 8개국 교수, 연구원, 공무원이 참석하는 단기연수를 개최하였다. 한·아세안환경협력사업단(ASEAN-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ject, AKECOP)은 지난 2000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의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공동연구와 단기연수, 컨퍼런스, 워크숍 그리고 석·박사 학위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리핀 현장 연구는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아세안환경협력사업단 워크숍

제5회 대학생 농업·농촌 탐방



농생대는 (사)김상진기념사업회(이사장 공재호)와 공동으로 제5회 대학생 농업·농촌 탐방을 개최하였다. 이번 탐방은 '맛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주제로 2009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간, 농림수산식품부와 ㈜씨오엠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농식품분야의 리더를 꿈꾸는 30여 명의 참가 학생들은 한식의 세계화와 전통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약하고 있는 이재우 불고기브라더스 사장, 김병수 팔당을가너후드 대표 등의 특강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와 함께 국립농업과학원, 순창 장류연구소를 견학하고 다도예절과 전통고추장 만들기를 직접 체험했다. 숙박 역시 전주 한옥생활체험관과 평택 수도사에서 이루어져, 농업과 농촌,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알찬 2박 3일을 보냈다.

생명환경운동에는 정년이 없다

김성훈 사단법인 환경정의 이사장(농경제 58)



“교수, 장관, 총장직에는 임기가 있으나 생명 환경운동에는 정년이 없지요.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살려야 할 생명과 환경과 농민들이 있는 한 마지막 한줌의 지혜와 혼을 쏟아야겠지요. 내 일신의 편안함과 부귀함이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것 아닙니까?”

중앙대 교수, 농림부 장관, 삼지대 총장을 거쳐 사단법인 환경정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훈 동문은 ‘미국 의 서정시인 롱펠로우의 먼 옛날 자기가 불렀던 노래가 허공으로 날아가 흩어진 줄로만 여겼는데 세월이 오래 지난 어느 날 소 잔등을 타고 귀가하는 어느 목동의 피리소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삶의 보람을 노래했다’며, 장관으로서 펼쳤던 친환경유기농정책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교수로서 가르쳤던 생명농업 사랑정신을 제자, 후배들이 실천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밝혔다.

김성훈 동문은 성장하고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삶의 나침반을 조금씩 달리 읽으며 신조로 삼았다고 한다. 학생이였을 때는 수·과·리(守·破·離)를 책상머리에 써 붙여 놓고, 모든 기존의 이론과 주의, 철학을 받아들여 지키다가, 때가 되면 자연스레 옳고 그름을 깨뜨려 깨우치며,

언젠가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으로 발전시켜 독립한다는 소승불교의 수신법을 따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을 비판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습관,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습관을 길렀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생각과 외모와 행동이 서로 다르더라도 화목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려는 부동이화(不同而和)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고 한다. 생명환경운동에 매진하며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성훈 동문. 생명의 숭고함을 인식하고 키우는 일 자체가 보람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한다.

2010학번 새내기 그리고 후배들에게의 메시지

大學이란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는 곳만이 아니라 인생과 철학을 닦고 인격을 가꾸며 자기보다 못한 민초들의 운명까지 책임지려는 이타심(利他心)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출세를 할수록 보듬고 품어줘야 할 대상도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량과 품성을 키워 가져야 보람 있는 인생살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행복하다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사장(축산 79)



사료 제조 전문 글로벌 기업 카길애그리퓨리나를 이끌고 있는 이보균 동문은 축산분야는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전문화에 대한 의식과 체계를 갖추었고, 전 세계를 무대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말한다.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갖는 의미가 좋았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업을 갖고자하는 생각에 농과대학에 진학했다는 이 동문은 지리산 산행, 서북농선 등반, 울릉도 일주, 달포 이상 작은 읍들을 돌았던 농약사용실태 조사 아르바이트, 목장 탐방과 실습 등 자연과 함께 할 기회가 많았던 재학 시절을 추억하며, 농과대학 진학은 생각할수록 좋은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우리네 삶에서 열린 마음과 긍정의 자세를 키우고자 노력한다는 이 동문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자연을 찾고 느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인간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시간만큼 행복하다’란 표현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보균 동문은 앞으로 10여 년은 인재개발과 가치중심의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자연과 가까이하며 나눔을 생각하는 실천적 시간으로 삶을 채울 계획이라고 한다.

2010학번 새내기 그리고 후배들에게의 메시지

2010학번이라 생각하니 새삼 느낌이 남다른데, 젊음의 열정으로 치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삶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과정에 양서를 가까이 하는 것, 읽고 자신의 느낌을 기록하는 습관은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자연을 가까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토론이나 다양한 대화도 중요합니다. 바라는 바와 맞지 않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자세였으면 하지만, 관념적으로 쉽게 맞는 어떤 결론 보다는 체험으로 만들어낸 가치들이 쌓이는 것이 좋겠지요. 졸업 후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과정 중에 자신을 찾고 세우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 걱정? 글썽 저라면 2학년 중간 정도에 시작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년 12월 4일자〉

세균에 썩지 않는 벼, 비린내 나지 않는 콩, 바이러스에 강한 고추

-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새 종자 개발 붐물



서울대 최양도 교수팀이 개발한 다수확 품종 벼(오른쪽) 보통 벼(왼쪽) 세계에 비해 2.5배 정도 수확량이 많다.

지난 11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프런티어연구 사업인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최양도(서울대 농생대 교수) 단장은 미국 듀폰과이어니어에 독특한 유전자 한 종류를 보냈다. 이 사업단 소속 서울대 농생대 황인규 교수가 미생물에서 발굴해 낸 '독소플라빈 분해 유전자(mfA)'다.

이들 듀폰과이어니어가 기술 이전을 위해 효능 시험을 해보라며 맛보기로 보내 준 것

이다. 미국 몬산토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유전자를 벼에 이식하면 벼가 '벼알마름병'에 걸리지 않는다. 벼알마름병은 세계 벼 농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세균 때문에 벼의 알곡 중 일부가 썩는 병이다. 문제는 이렇게 썩은 알곡이 썩지 않은 알곡과 함께 수확되고, 이를 먹으면 복통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쌀 대량 생산지인 동남아에서만 연간 전체 수확량의 5% 정도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다.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이 벼와 콩·고추 등 작물 종자 개발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몇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몬산토·듀폰·바스프·리마그렌·신젠타 등 세계 메이저 종자회사들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은 정부가 매년 100억 원씩 10년간 총 10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대 연구 사업단. 이 사업단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 콩, 쌀눈이 기준 쌀의 3배에 달하는 거대 배아 벼, 가뭄에도 잘 자라는 벼, 바이러스에 잘 걸리지 않는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개발해 냈다.

최 교수는 "세계를 겨냥해 새 품종을 개발한 게 주효했다. 국내외에 이전할 기술과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사업단 소속 연구자들은 앞으로 기술료 수입의 인센티브만으로도 부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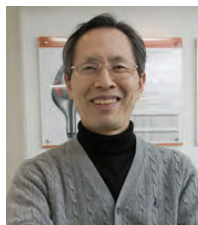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동아일보 2010년 1월 14일자〉

[대한민국 골프계 숨은 공신들]

구현수 사장

"우드 13년 올인... 틈새 성공 홀인원"



구현수 사장(임학67)은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시타해보면 디자인, 성능, 타구감 등에서 순수 국산 토종 브랜드 데이비드골프가 어떻게 세계적인 용품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데이비드골프는 대표적인 국산 골프클럽 제작 업체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을 모회사로 둔 글로벌 브랜드들이 국내 골프클럽 시장을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비드골프는 20년째 꽃피우며 국산 브랜드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

데이비드골프의 구현수 사장은 중상급자용 '유틸리티우드'와 '하이브리드'라는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2000년 국산으로는 최초의 유틸리티클럽 이지플러스를 론칭하면서 우드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구현수 사장은 "클럽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품질에서 평가받지 못하면 마케팅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다.

데이비드 골프는 2년에 한 번 신모델을 출시한다. 매년 수십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신제품 판매가 저조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함이 최선을 다해 품질에 매진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한다.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서 뒤쳐지는 것이 있다면 디자인 능력일 뿐 유틸리티클럽과 하이브리드만큼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

1948년생 구현수 사장은 환갑이 넘은 나이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 "20년 전에 창업하면서 가졌던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앞으로도 10년간은 현역에서 더 활약할 수 있다. 데이비드골프는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산 브랜드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는 그의 도전이 아름답다.

글 원성열 기자 사진 임진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년 12월 23일자〉

[fn논단] 수월성 기초한 교육체제 정립해야

- 농경제사회학부 이성우 교수



MB 정부의 경제 및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의 의문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성과가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MB 정부의 시의적절한 정책적 판단과 처방의 효과에도 기인하지만 각 분야에서 세계 흐름을 읽고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존재와 배치가 주효했음은 불문가지라 하겠다. 따라서 남은 3년의 임기 중 보다 중장

기적인 정책, 특히 교육분야에서의 선진적 체제구축에 소홀함이 없었으면 한다. MB 정부 들어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있지만 진행과 집행은 다소 미진해 보인다. 교육분야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정립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불거진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개편에 대한 논란은 대표적 사례다. 외국어고등학교 문제의 본질은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청난 교육 수요가 존재하는데 기인한다. 이것은 국내적 시각에서의 시장 수요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시장에서도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어고 본연의 수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정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교과별 장단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평가의 문제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약 7년 전부터 교육혁신을 추진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학년에서 개별 학과목에 대해 등급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개별 학생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내 주요 대학들의 입시에서는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학년별 그리고 전체 기간 중 등위를 요구하지만 우리나라는 학년별 등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창의력을 강조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체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주입식 교육에 대한 장점을 몰아내는 오류도 없어야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재 중 하나인 빌 게이츠는 주입식 교육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이 가능한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창의성은 기존의 지식에 대한 이해 위에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체제에 대한 수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도하면서 백년대계의 해안을 필요로 하는 교육분야에서 단기적, 국내적 시각으로 갈라파고스적 교육체제를 만드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동문동성]

▶ **김영옥 동문**(축산63)이 2009년 12월 1일 (주)체리부로 부회장에 취임했다.

▶ **정세진 동문**(농경제70)이 2009년 12월 태영인더스트리 사장으로 임명되어, 기존에 맡고 있던 평택당진항양곡부두 대표이사과 겸임한다.

▶ **이남식 동문**(농화학74)이 2009년 12월 임기 4년의 전주대 총장으로 재선임되었다. 이 동문은 2003년 4월 제9대 총장으로 부임한 뒤 세 차례 연속 총장으로 재임하게 됐다.

▶ **이창재 동문**(임학80)이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선임되어 1월 4일 취임식을 갖고 제27대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했다.

▶ **이원태 동문**(농경제64)이 대한통운 사장으로 선임되어 1월

13일 취임했다.

▶ **유인상 동문**(농공74)이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31대 청장에 임명되었다.

▶ **허윤진 동문**(농경제73)이 1월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 **문재풍 동문**(농업교육74)이 1월 26일 임기 3년의 낙농진흥회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 **류근정 동문**(농경제00)이 2009년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교 안보연구원 연수를 수석으로 수료하여 외교통상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현재는 외교통상부 의전실에 근무하고 있다.

[교수동성]

▶ **박은우 학장**은 2009년 12월 3일 서울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사)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2009년 정기총회에서 2010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김귀곤 교수**(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는 DMZ 생태조사단장으로서 2009년 12월 7일부터 10일 까지 3박4일 동안 민 · 관 · 군 합동으로 DMZ 중부 지역에 대해 동절기 생태계 조사를 실시했다.

▶ **장판식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009년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주최로 열린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중점 전략기술과 R&D 지원 전략 심포지엄'에서 저탄소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녹색성장 기술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 **김성일 교수**(산림과학부)는 1월부터 아리랑TV에서 친환경 녹색성장을 다루는 'G-코리아' (토요일 오후 7시30분)를 진행한다.

▶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는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Kyoto University의 Center for Integrated Area Studies와 함께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임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형주 교수**(농생명공학부)는 1월 21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장으로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질산염과 식품안전성을 주제로 제5차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문회 소식]

▶ 농산업교육과 신년교례회

농산업교육과(농산업교육과 회장 심용섭/농촌지도 · 사회교육전공 회장 조영철) 동창회는 1월 9일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동문 12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은사님의 덕담을 들으며 하나 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또한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된 한 팀을 선발하여 매년 학과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선진교육연수의 연수비 지원 증서를 수여했다.



▶ 임학동문회 신년교례회

임학동문회(회장 정윤희)는 1월 13일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정윤희 동문회장의 신년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동문회 사무총장으로 봉사한 정수봉(60년입학) 동문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2009년 경과보고 및 2010년 사업계획 보고가 이뤄졌으며 서로 덕담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 농생대 동창회, 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산학문화재단 설립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한인규)는 모교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과 모교 발전기금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설립을 위해 한인규 동창회장, 정윤희 상임부회장, 이현수 상임부회장이 각각 1억 원씩 설립 기금을 출연하였고, 많은 동문이 정성을 모았다. 1차년도에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팀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0-4847
농업생물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품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0-4528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학실 T.880-4619
식품공학 T.880-4824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 T.880-4510,
calsweb@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